

# 대지급금으로 땅 사고 건물 세워 고용부, 총 22.2억 부정수급 적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허위근로자 등으로 편취 사례  
사업주 2명 구속기소 등 엄중조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대지급금 기획조사 결과는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과 비

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사업자가 실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체 실경영자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이체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수사가 개시되자 A 씨는 허위로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고의로 회피·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

해 탐문수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등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도 많았다.

또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해 11월 13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이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서한오토 USA'에 합격해 출국했다. /한국폴리텍대학

## 폴리텍대, 졸업예정자에 해외 취업기회 제공

제조업 필수기술 전공자 중심 선발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졸업예정자들이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얻는다. 폴리텍대는 28개 캠퍼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 해외취업반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배 채용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으로 2007년 미국에 진출했다.

1년간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선발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500만원 수준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2001년생 정안우(23세) 씨는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단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연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인 화신아메리카, 성장오토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업부, 과기부 개발 원천기술 상용화

산업부, 29개 과제에 175억 지원  
12개 과제 이어달리기 연구개발 공고  
원천-상용화 개발자 간 기술교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원천 기술을 이어받아 산업융합지원부가 원천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7일 과기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29개 과제에 올해 총 1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60억원 규모의 12개 신규과제,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을 8일 공고한다. 산업부는 이들 신규과제에 향후 4년간 약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 → 응용 → 개발의 전주기를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모델이다.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료헬스,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 과제를 기획했다.

예를 들어,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부의 '고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산업부는 자동차 및 가전 컨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을 상용화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부가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화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

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 촉매 전극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의료헬스 분야에서는 혈류량 측정을 위한 '열/광센서 하이브리드 소자 원천 기술'을 활용, 다중 생체신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패치형 센싱모듈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부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 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과기부와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연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31개 가구업체, 10년간 구매입찰서 담합

공정위, 과징금 총 931억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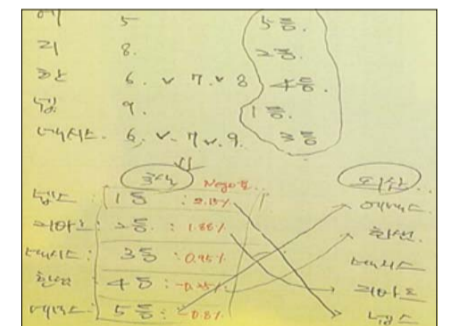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스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폼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피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홈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 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체, 보투네오텍판사업, 한특퍼니처, 세한프레스전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불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



주요 가구업체들이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기 위해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中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기업 10개사와 박람회 참석

정부가 오는 8~13일 중국 산둥성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녹색기술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한다. 아울러 산

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한중 녹색산업박람회는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4월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 전시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 소개된다.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도 마련돼 있다.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가 개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는 자리다.

또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둥성 및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산둥성 설명회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설명회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한다. (주)과학기술분석센터, (주)대명에스코, (주)블루윈, (주)에코크레이션, 정우이엔티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제18차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